

# 6만원 못 넘는 삼성전자, 상속세 이슈에도 저가매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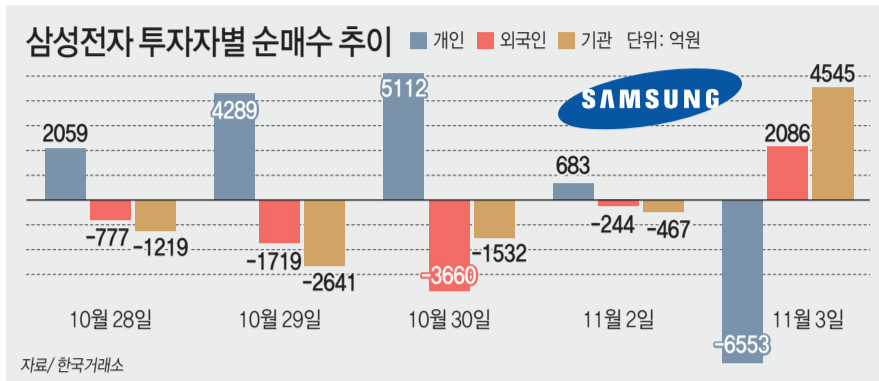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 지지부진  
이건희 별세 후 일주일새 4.39% ↓

내년 실적, 배당 확대 등 기대  
증권가 “지금 저가매수 기회”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춤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상속세와 지배 구조 개편 이슈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저가매수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2.44% 상승한 5만 8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이후 6만 원선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1일 장중 6만 1500원까지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일주일 사이 4.39%나 하락했다.

특히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개인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3일까지



외국인은 3762억원, 기관은 2731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6113억원 규모로 사들였다.

### ◆상속세·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투심에 영향

앞서 삼성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올해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달성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66조 96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6.44%,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지난 2017년 4분기(65조 9800억원)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영업이익은 12조 3533억원으

로 전 분기 대비 51.6%, 전년 동기 대비 58.5% 증가했는데 7분기 만에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겼다.

실적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10조 5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인 지배구조 개편은 장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단기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공정경제 3법이 올해 내 통과될 경우, 삼

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해 관련 기대가 식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고 이건의 회장은 삼성전자를 2억 4927만 3200주, 지분율 4.1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대부분은 삼성전자 보유 지분 상속에서 발생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속받은 삼성전자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경우 상속받은 삼성전자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매입해 계열 분리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향후 주가 전망은 긍정적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삼성전자 저가매수 기회라고 말한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 실적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주주환원 계획도 내년 1분기로 미루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대부분이 7만원대

이상의 목표주가를 내놓고 있으며, 하나금융투자는 8만 6000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는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System) LSI 부문의 매출 역시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 부분의 실적 개선에 따라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37% 증가한 51조 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4분기 실적 둔화는 내년 실적 개선을 앞두고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 배당액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감도 존재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의 단기 투자 포인트는 배당 확대 쪽에 맞춰질 수 밖에 없다”며 “내년 초 배당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보험판매사 첫 코스피 노크... 토털 라이프 케어 기업 도약

### IPO 간담회

#### 에이플러스에셋

생명·손해보험사 35곳 계약  
자회사 7곳 통해 시너지 기대

에이플러스에셋이 국내 보험판매사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독립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은 설계사 수와 신계약 규모 면에서 보험사를 압도하는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는 보험사 이상의 배당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박경순 에이플러스에셋 대표이사는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토털 라이프 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며 성장 일정과 향후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설계사 인원수 기



박경순 에이플러스에셋 대표이사.

준으로 국내 10위 규모의 기업형 GA다. 삼성생명 법인영업본부 출신인 박근호 회장이 2007년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했다. 원수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보험을 분석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GA가 계약된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자사 상품만 판매하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와는 차이가 있다.

생명보험사 22개, 손해보험사 13개와 계약을 맺었다. 지난 6월 기준 4417명의 설계사가 영업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한 고객 수는 109만 3000명 정도다.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보유 계약 건수는 188건에 달한다.

자회사를 통해 시너지를 끌어내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상조서비스, 부동산컨설팅, 건강관리 정보제공,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7곳을 갖고 있다. 일례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파인랩을 통해 보험 설계사 영업에 도움이 되는 모바일 앱 등을 개발한다. 여기에 자회사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중개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소속 설계사들이 함께 판매하는 중이다.

이에 따른 빠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

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매출액 7.7%, 영업이익 38.6%, 순이익 34.7%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39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20억원, 당기순이익 9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과 비교하면 각각 13.94%, 73.04%, 192.93% 늘어난 수치다.

총 공모주식 수는 279만 8086주다.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밴드)는 1만 500원에서 1만 2300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에 따른 공모금액은 밴드 상단기준 약 344억원이다. 상장 시 예상 시가총액은 2373억원에서 2781억원 규모다.

5일~6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된 후 오는 10~11일 일반 청약 받는다. 이달 말 상장 예정이며 NH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이 공동주관을 맡았다.

/송태화 기자 alvin@

### 포스코건설·에스오일·중소 철강·정유부산물 활용 고성능 콘크리트 개발

포스코건설과 에스오일은 최근 중소기업과 손잡고 철강 부산물과 정유 부산물을 활용한 고성능 콘크리트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이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슬래그에 정유 부산물인 유탄을 융합해 만든 시멘트가 콘크리트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고 상용화에 착수한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산화마그네슘(MgO), 산화칼슘(CaO) 등 슬래그 성분과 삼산화황(SO3) 등 유탄 성분이 반응을 일으키면 황산마그네슘(MgSO4·2H2O)·계열 물질 등이 생성되면서 양생속도가 10% 빨라져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내화특성과 내구성이 높아지고, 저렴한 유탄이 들어가면서 시멘트 비중이 낮아져 재료비가 10%정도 절감된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에스오일, 태명실업, 범준이앤씨 등과 철강과 정유 부산물을 융합한 시멘트 개발과 함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협약을 맺었다.

포스코건설은 에스오일로부터 유탄 등 정유부산물을 10년간 공급받아 유탄 시멘트 콘크리트 기술을 보유한 범준이앤씨와 함께 새로운 시멘트를 개발하고, 태명실업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최근 건설 공사에서 사용 비중이 커지고 있어 단순하게 시멘트를 생산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 서울 아파트 연내 4056가구 공급

서울 평균 매매가 2년래 36% ↑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따라서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청약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는 4056가구가 일반 공급된다.

3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2017년 말 3.3㎡당 2170만원에서 2019년 말 2954만원으로 2년만에 약 36%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압도적인 수치다. 2위인 대전시(23%)도 서울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성북구, 동대문

구 등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한동안 저평가됐다고 평가받던 지역이다. 강동구는 같은 기간 동안 2099만원에서 3047만원으로 45%나 상승했다. 이어 성북구(42%), 동대문구(41%)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시장의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7월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주요 요인이다. 전셋값보다도 낮은 수준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다 보니 수요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 조합과 건설사 등 사업자 입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굳이 막대한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업을 서둘러 진행할 이유가 없다. 수요는 늘고

### 〈연내 서울 주요 분양예정 단지〉

위치	단지명	총 세대수 (일반분양)	분양예정	시공사
강동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809(809)	11월	현대건설, 계룡건설
은평구	역촌1구역 동부센트레빌(가칭)	752(378)	12월	동부건설
광진구	서울 자양 코오롱하늘채(가칭)	165(42)	12월	코오롱글로벌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	2990(224)	12월	삼성물산

\*상기내용은 건설사 사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포

공급은 줄어드니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요단지으로 현대건설·계룡건설은 이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5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84·101㎡ 809가구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도보거리의 강빛초·중(2021년 상반기 개교예정) 등 학교를 포함해 인근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현상설계 공모에 선정된 바 있는 특화 설계와 힐스테

이트의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갖춘 단지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용 85㎡ 이하 분양물량의 15%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되고 공공택지 내 분양단지로서 경기, 인천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전용 101㎡ 대형 타입의 50% 물량은 추천제에 당첨자를 선정하는 등 폭넓은 기회가 제공된다.

/이규성 기자 peace@